

계원예술대학교-프랑스 부아부쉐, 국제 협력 MOU 체결... '언세틀드 2026' 공동 추진 본격화 및 KUMA·EX-KUMA 디지털 플랫폼 본격 가동

✎ 김동열 기자 | ⓒ 승인 2026.03.06 14:20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는 지난 2월 25일 프랑스의 세계적 예술·디자인 센터인 도멘 드 부아부쉐(Domaine de Boisbuchet, 법인명 SARL Culture et Agriculture)와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계원예술대학교가 추진 중인 '계원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인 '언세틀드 2026(UNSETTLED 2026)'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제 워크숍 공동 기획 및 운영 ▲예술 및 실천 중심 연구 협력 ▲온·오프라인 전시와 공개 발표회 공동 개최 ▲학술·교육 자료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언세틀드'는 자연을 고정된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조건으로 바라보는 자연 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예술적 실험과 창의적 실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2026년 열릴 '언세틀드 2026'의 주제는 '숲을 펼치다(Unfolding the Forest)'로, 자연과 장소, 그리고 삶의 경험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숲'을 탐구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계원예술대학교와 도멘 드 부아부쉐 외에도 온양민속박물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예술적·인문학적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아카이빙과 디지털 전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인 'KUMA'와 전시 특화 플랫폼인 'EX-KUMA'를 새롭게 구축한다. 'KUMA'는 미술관의 주요 활동과 연구 성과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EX-KUMA'는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를 매개로 전 세계 예술 교육 기관 및 작가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계 워크숍은 2026년 6월 29일부터 8월 28일 사이 진행되며, 시각디자인·설치미술·퍼포먼스·애니메이션·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마스터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창의적 교류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전시 형식으로 공개된다.

국제 워크숍 UNSETTLED를 기획한 KUMA 관장 최정심 교수(전시콘텐츠디자인과)는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동시대 글로벌 예술 실천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연구·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험적 교육 모델을 구축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ی겠다”고 전했다.

‘언세틀드 2026’ 하계 워크숍 관련 세부 내용은 6월 중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와 KUMA(계원예술대학교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동열 기자

계원예술대학교, 프랑스 부아부쉐와 손잡고 ‘언세틀드 2026’ 추진

✎ 이지안 | ⓒ 승인 2026.03.06 14:32

KUMA·EX-KUMA 디지털 플랫폼 본격 가동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가 지난달 25일 프랑스의 예술·디자인 거점 기관인 도멘 드 부아부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워크숍 ‘언세틀드 2026’의 공동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계원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언세틀드 20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 워크숍 공동 기획·운영, 예술 및 실천 기반 연구 협력, 온·오프라인 전시 및 공개 발표회 개최, 학술·교육 자료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자연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한 ‘언세틀드’는 자연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예술적 실험과 창의적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주제는 ‘숲을 펼치다(Unfolding the Forest)’로, 숲을 삶과 장소, 자연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명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이 협력 기관으로

함께 참여해 예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논의를 확장한다.

특히 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 아카이빙과 디지털 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 'KUMA'와 전시 특화 플랫폼 'EX-KUMA'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되는 웹사이트는 분할 화면(Split-screen) 레이아웃과 사용자 반응형 인터랙티브 요소를 적용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에서도 몰입감 있는 전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KUMA'는 미술관의 주요 전시와 연구 성과를 기록·축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역할을 하며, 'EX-KUMA'는 전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예술 교육기관과 작가들을 연결하는 전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원예술대학교는 다양한 예술 실천과 교육 활동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하계 워크숍은 2026년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여러 분야의 마스터와 학생들이 참여해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완성된 결과물은 10월 1일 이후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정심 KUMA 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예술 실천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육과 연구, 전시를 통합하는 혁신적 모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계원예술대학교 및 KUM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원예술대학교-프랑스 부아부쉐, 국제 교류 MOU 체결...‘언세틀드(UNSETTLED) 2026’ 및 디지털 플랫폼 ‘KUMA·EX-KUMA’ 본격 가동

자연주의 관점의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언세틀드(UNSETTLED)’ 공동 추진

기사입력:2026-03-06 15:04:55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는 지난 2월 25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예술·디자인 센터인 ‘도멘 드 부아부쉐(Domaine de Boisbuchet, 법인명 SARL Culture et Agriculture)’와 국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계원예술대학교의 ‘계원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언세틀드(UNSETTLED)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국제 워크숍 공동 조직 및 교류 △예술 및 실천 기반 연구 협력 △온·오프라인 전시 및 공개 발표회 개최 △학술 및 교육 자료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언세틀드’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을 고정된 대상이 아닌 불안정하고 진화하는 조건으로 탐

구하며, 예술적 실험과 창의적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026년 진행될 ‘언세틀드 2026’의 주제는 ‘숲을 펼치다 (Unfolding the Forest)’로, 자연과 장소, 삶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의 ‘숲’에 주목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계원예술대학교와 프랑스 도멘 드 부아부쉐뿐만 아니라 국내 온·오프라인 박물관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예술적·인문학적 탐구를 심화할 예정이다.



특히 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 아카이빙과 디지털 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 ‘KUMA’와 전시 특화 플랫폼 ‘EX-KUMA’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되는 웹사이트는 분할 화면(Split-screen) 레이아웃과 사용자 반응형 인터랙티브 요소를 적용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에서도 몰입감 있는 전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KUMA’는 미술관의 주요 전시와 연구 성과를 기록·축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역할을 하며, ‘EX-KUMA’는 전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예술 교육기관과 작가들을 연결하는 전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원예술대학교는 다양한 예술 실천과 교육 활동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언세틀드 2026’의 하계 워크숍은 2026년 6월 29일부터 8월 28일 기간 내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마스터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창의적 교류의 장을 형성한다. 워크숍의 결과물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제 워크숍 UNSETTLED를 기획한 KUMA관장 최정심 교수(전시콘텐츠디자인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현대 예술 실천을 직접 경험하고 국제적인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과 연구, 전시가 연결된 실험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언세틀드 2026’ 하계 워크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 및 KUMA(계원예술대학교 미술관) 웹사이트를 통해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계원예술대학교-도멘 드 부아부쉐, ‘언세틀드 2026’ 협력 협약 체결 및 디지털 플랫폼 ‘KUMA·EX-KUMA’ 본격 가동

기사입력:2026-03-06 15:01:50



[더파워 최성민 기자]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는 2월 25일 프랑스 예술·디자인 기관 도멘 드 부아부쉐와 국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언세틀드 2026’의 공동 추진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계원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언세틀드 2026’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제 워크숍을 함께 조직하고, 예술·실천 기반 연구 협력과 온·오프라인 전시, 공개 발표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술 및 교육 자료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한다.

‘언세틀드’는 자연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와 생성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2026년 주제 ‘숲을 펼치다(Unfolding the Forest)’는 숲을 자연과 장소, 삶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탐구의 폭을 넓힌다.

계원예술대학교는 프로젝트의 전문적 아카이빙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KUMA’ 및 ‘EX-KUMA’ 웹사이트를 신설한다. 인터랙티브 기술로 몰입감을 높인 이 플랫폼에서 ‘KUMA’는 연구 기록을, ‘EX-KUMA’는 전 세계 예술가와 기관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국제 교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하계 워크숍은 2026년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전공 분야의 마스터와 학생들이 창의적 협업을 펼친다. 결과물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정심 KUMA 관장은 “이번 국제 협력은 학생들이 글로벌 예술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연구·전시가 연결된 실험적 모델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은 6월 중 계원예술대학교 및 KUM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계원예술대학교, 프랑스 도멘 드 부아부쉐와 MOU... ‘언세틀드 2026’ 및 KUMA·EX-KUMA 디지털 플랫폼 본격 가동을 통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 이미숙 기자 | ⓒ 승인 2026.03.06 14:26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는 2월 25일 프랑스 예술·디자인 기관 도멘 드 부아부쉐(Domaine de Boisbuchet, 법인명 SARL Culture et Agriculture)와 국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언세틀드 2026’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MOU는 ‘계원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인 ‘언세틀드 2026’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적 확장을 목표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국제 워크숍을 공동 조직하고, 예술 및 실천 기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전시와 공개 발표회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 자료와 교육 콘텐츠 교환을 통해 장기적 협

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언세틀드’는 자연을 정적인 객체가 아닌 유동적이며 생성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예술 실험의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둔다.

‘언세틀드 2026’의 주제는 ‘숲을 펼치다(Unfolding the Forest)’로, 숲을 자연·장소·삶의 경험이 교차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해석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온양민속박물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의 학문적 깊이를 더한다.



특히 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아카이빙과 디지털 전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인 ‘KUMA’와 전시 특화 플랫폼인 ‘EX-KUMA’를 새롭게 구축한다. ‘KUMA’는 미술관의 주요 활동과 연구 성과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EX-KUMA’는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를 매개로 전 세계 예술 교육 기관 및 작가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6년 6월 29일부터 8월 28일 사이 열리는 하계 워크숍에는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전시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여한다. 협업과 교류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전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KUMA 관장 최정심 교수는 “이번 국제 협력은 학생들이 글로벌 예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국제적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교육·연구·전시가 통합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정립해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은 6월 중 계원예술대학교 및 KUM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